

세속의 티끌 툭툭...내면의 '수마노'를 찾는다

적멸보궁 2- 정선 정암사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자, 일생을 마친 유서깊은 곳이다. 율사와 대국통으로 권력 핵심에 있던 자장이, 이산골 오지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섣덕여왕 당시 당나라를 다녀온 자장은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섣덕여왕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김춘추와 김유신의 견제를 받았다. 이 신진세력은 당 태종을 모델로 하는 유교치국책을 지향했고, 진덕여왕을 거쳐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자장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구역불교의 마지막 세대였던 자장의 활동에 제동이 걸린 반면, 신역불교를 받아들인 원효와 의상은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불교계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난 셈이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자장율사. 하루아침에 권력과 명예를 잃은 그는 '초심'을 택했다. 젊은 시절 땅에도 마다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정진 했던 그때처럼, 그래서 찾은 곳이 지금의 태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정선 정암사는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러 온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보물 제410호인 수마노탑. 현재 국보승격을 추진중이다.

**정암사, 세속과 끊고 청정 수행하란 뜻
정선군, 수마노탑 국보승격 추진
효봉, 지월 스님 등 현대 선지식 수행**

백산 정선 정암사다. 자장율사의 입적 후 정암사는 역사에서 1천년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 정암사가 일반에 알려진 건, 1948년 함백광업소가 문 열면서부터다. 교통이 발달한 지금은 도로변에 위치해,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디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찰이 됐다. 정암사에는 대웅전이 없고 적멸궁만 있다. 적멸궁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 향사 머물러 계시는 궁궐'이라는 의미로, 수미단에 불상이 없고 방석만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인데, 부처의 진짜 몸이 있으니 따로 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하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이곳이 아닌 적멸궁 뒤편 수마노탑에 봉안돼 있다. 게다가 수마노탑서 보는 풍광은 가히 장관이다. 100m 남짓, 7~8분을 올라왔을 뿐이지만 워낙 고지대라 태백산맥의 산줄기가 한 눈에 보인다. 자장율사가 수마노탑을 만들면서 금탑과 은탑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수마노탑은 국보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는 3월 5일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 일원에서 국보지정 신청을 한 보물 제410호 정암사 수마노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문화재위원회 등은 3월말이나 4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보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만큼 수마노탑의 국보 지정 여부는 늦어도 4월 말께는 판가를 날 전망이다. 수마노탑은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7층 석탑(模塔石塔)으로, 기반부는 평면이 점점 좁아지게 화강암 6단으로 쌓았고, 그 위에 회색색을 띠는 석회암 벽돌을 2단으로 쌓아 탑 몸체부를 받치고 있어, 마노석 하고는 상관없는 석회암 탑이다. 그런데도

왜 수마노탑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자장이 정암사를 짓고 7년 후에 수마노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지금의 수마노탑은 고려시대에 세웠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탑에 흑시 마노석이 섞여 있으나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마노석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마노를 칠보(七寶) 가운데 하나로 여겨 소중히 여기는데 일종의 신비스런 탑으로 여기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정암사라는 이름은 세속과 인연을 끊고 정결하게 이곳에 수행하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정암사의 정(靜)자는 맑고 깨끗하며 사념이 없다는 의미다. 이 절은 일반 신도들뿐만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 사이에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성소(聖所)로도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수행자들이 위한 들어오면 세속의 연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잘 갖춰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일제시대 현직판사를 그만두고 총독부의 집요한 주시를 피해 이곳에 3년 동안 머물며 수행 정진한 효봉(曉峰)스님과 해방 후 지월(指月), 서옹(西翁)스님이 이곳을 거쳐 가는 등 출가자들의 수행처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석탄산업 중심지로 정선이 부각되면서 알려졌지만 수행자들 사이에서 정암사는 재앙을 막아주는 기도처요, 성지로서 인식돼 왔다. 그래서인지 정암사에 오니 다른 사찰서 느끼지 못한 이 절만의 신산한 기운이 느껴진다.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정선 정암사=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주변 관광지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였던 소나무가 있는 '타임캡슐공원'

아리랑의 흔적이 담긴 **아우라지**가 주변에 있다. 여량면에 위치한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의 배경이 된 곳이다. 아우라지는 남한강 천 리 물결을 따라 처음 뗏목이 출발하던 곳으로, 임과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는 여인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전해 내려온다. 아우라지 처녀동상 사람과 그리움의 대상인 아우라지는 그 모습이 많이 변했다. 하천을 잇는 둘라리와 함께 대형 조형물이 세워진 다리로 들어섰다. 아우라지역에는 열차 카페가 문을 열고, 구절리까지 **레일바이크**가 오가면서 한적함을 벗어나고 이방인의 발길 또한 잦아졌다. 정선은 애산리의 **아라리촌**은 정선의 옛 주거 문화를 재현한 곳으로 굴피집, 너와집, 귀틀집이 조성되었는데 이곳에서 하룻밤 묵는 체험도 가능하다.

다. 정선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장터다. 곤드레나물밥, 킷등치기국수 등 정선의 별미를 파는 먹자골목이 들어서 있으며, 각종 산나물과 옥수수, 수리취떡 등을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5일장인 **정선장터**는 2012년 '한국 관광의 별'에도 선정된 명소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를 활용하여 신동엽 조동리 새비제에 조성한 **타임캡슐공원** 가운데 있는 소나무가 멋진 풍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1년 6월 해발 850m인 신동엽 조동리 일원 4만2807㎡ 부지엔 이색적인 '타임캡슐 공원'이 개장했다. 이 공원은 지난 2001년 450만 관람객을 동원했던 코믹멜로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인 조동리 새비제에 자리잡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인 권우(차태현)와 엽기적인 그녀(전지현)가 새비제 소나무 아래 묻어둔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스토리를 토대로 관광자원화한 것이다. 소나무를 중심으로 12개의 달을 형상화한 자리에 5868개의 타임캡슐이 묻혀 있다. 타임캡슐은 100일과 1년, 2년, 3년 등 기간별로 임대된다. 대여료는 1만~4만원선이다. **▲여행 정보**
- 정선군청 문화관광포털 www.ariatour.com
- 정선레일바이크 www.railbike.co.kr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아라리촌, 화암동굴) www.jsimc.or.kr
▲문의 전화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033)560-2363
-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1544-9053

가는길&묵을곳&먹을곳

■서울서 정선까지 승용차로는 3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영동고속도로 새말IC에서 42번 국도를 타면 정선읍내에 진입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에 '정암사'를 치면 주소가 나온다. ■정선읍내에는 숙소 사정이 좋지 않다. 사복 일대서 숙소를 찾는 게 좋다. '하이원리조트' (1588-7789) 등 리조트·호텔·모텔·펜션들이 즐비해 쉽게 숙소를 잡을 수 있다. 전통가옥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아라리촌' (033-560-2059) 체험 숙박을 해볼만하다. 귀틀집, 너와집 등에서 1박이 가능하다. 크기는 13평(4명 수용)부터 47평(10명 수용)까지 다양하다. 가격 10만~30만원대. ■정선의 대표적인 음식은 단연 곤드레나물밥이다. 곤드레나물과 들기름을 넣어 지은 밥에 고추장과 자박장을 비벼먹는 맛이 일품이다. 정선읍내 짜리골식당(033-562-4554) 등이 이름난 곳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2>에 나온 아리랑민요를 구성지게 부르는 전옥매 할머니의 '육산장(033-562-0739)'도 곤드레나물밥이 일품이다.



정선 육산장의 일품 메뉴인 '곤드레나물밥'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등
할인가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림등 (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 (8cm)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 (10.5cm) @5,500원 (24개이상) • 바림등 (13cm) @11,000원 (12개이상) • 바림등 (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등 (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 (8cm)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 (10.5cm) @5,500원 (24개이상) • 공단등 (13cm) @11,000원 (12개이상) • 공단등 (20cm) @35,000원 (4개이상) • 등철사 (100개) 6cm/8cm/10.5cm/12cm 70,000원/75,000원/80,000원/8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만월등 (100개) 150,000원 (1Box) • 비닐만월등 (국산) 170,000원 (1Box) • 영가만월등 (100개) 150,000원 (1Box) • 연화만월등 (100개) 200,000원 (1Box) • 장만월등 (국산)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 (100개) 250,000원 (1Box) • 오색청사초롱 (100개) 240,000원 (1Box) • 종이주름등 (200개) 160,000원 (1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축카드 [21종] @300원 (1,000장 이상) 구성: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18.5x25.6cm • LED전구 110,000원 [국산] 1BOX: 50개 색상: 햇불색/주광색 • 막대제등램프 (봉축/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000원/7,000원/30,000원 연잎/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 PVC등표 12,000원 (100개) 크기: 8.5x21cm
--	--	--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가다육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